

“학생들 열정·정성 듬뿍 담긴 음식 최고예요”

호남대 ‘리얼월드 프로젝트’ 10주년

휴미락비즈니스 융합전공 100여명
26-27일 수완지구 어나더키친서
지역상권 상생·장애인 초청 대접
실무 강화·전공 융복합 교육 실현

“학생들의 열정과 정성이 듬뿍 담긴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호남대학교는 26-27일 이틀간 광주 수완지구 복합외식문화공간 ‘어나더키친’에서 휴(休)미(美)락(樂)비즈니스 융합전공 학생들의 현장 중심 실습 프로그램 ‘2025 리얼월드 프로젝트(R eal World Project)’를 진행했다.

올해로 10년차를 맞은 ‘리얼월드 프로젝트’는 단순한 전공 실습이나 단기 인턴ships를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현장 적응력을 키우는 호남대의 대표적인 실



호남대 휴미락 비즈니스 융합전공 참여 학생들.

〈호남대 제공〉

무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리얼월드 프로젝트는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핵심 키워드로 다습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직원들과 장애인을 초청해서 따뜻한 밥 한끼를 제공했다.

휴미락비즈니스 융합전공에 참여하는 호텔 컨벤션학과, 외식조리베이커리학과, 경영학부,

미디어영상공연학과 등 총 4개학과 학생 100여명은 밀려드는 손님에 응대하느라 눈 코 뜰 새 없이 분주했다.

외식조리베이커리학과 학생들은 주문받은 음식을 조리하느라, 호텔컨벤션학과와 경영학부 학생들은 고객 응대와 음식 서빙 등에, 미디어영상공연학과 학생들은 행사 촬영으로 쉴틈

없이 움직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소비자들의 실시간 피드백을 경험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실무 역량을 자연스럽게 체득했다.

행사에 앞서 학생들은 조리, 음료, 매장 관리, 고객 응대, 콘텐츠 제작, 공연,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전 과정에 참여해 특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융합형 팀워크를 다졌다.

정제평 RISE 사업단장은 “2025 리얼월드 프로젝트는 환대산업 전공 학생들이 실제 상권에서 실고객을 대상으로 실무를 수행함으로써 직무 자신감과 진로 방향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리얼월드 프로젝트는 호남대학교 RISE 사업단이 추진 중인 광주형 로컬 커스터마이징 청년혁신인재 양성 사업의 핵심 실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산업 현장 및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실무 능력 강화와 전공 융복합 교육을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선옥 기자



광주충장신협, 난방용품 지원 등 ‘나눔 캠페인’

광주충장신협은 27일 동구 계림2동행정복지센터와 지역 내 경로당에 전기장판 10채와 생필품을 담은 어부바박스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충장신협 임직원 및 계림2동행정복지센터 동장이 참여했으며, 난방용품과 더불어 독거노인을 위해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광주충장신협의 이번 나눔활동은 신협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하는 ‘온세상 나눔캠페인’의 일환이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전국 신협 및 임직원의

기부로 운영되는 공익재단으로, 2016년부터 10년째 해당 캠페인을 후원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68개 신협이 함께해 지역 내 나눔 온도를 높일 예정이다.

정명수 광주충장신협 이사장은 “온세상 나눔 캠페인은 지역과 이웃의 결을 지키는 신협의 가치를 잘 나타낸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라며 “광주충장신협은 앞으로도 에너지 빈곤 해소와 지역 돌봄 강화에 앞장서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채만 기자



전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성료

전남도는 27일 여수 라마다프라자에서 ‘202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열고 시·군에서 추진한 다양한 건강증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확산을 도모하는 등 통합건강관리 강화에 나섰다.

행사는 전남도와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2개 시·군 보건소, 전문 인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발표, 특강, 사업 홍보 전시 등으로 진행됐다.

고흥군·무안군·장성군·함평군 등 4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무원 2명과 민간인 6명을 포함해 총 12점의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김재정 기자

동강대 임상병리학과, RISE 창업 경진대회 ‘최우수’

동강대학교는 “최근 광주 북구 빚고을 창업스태이션 스테이지에서 열린 ‘2025년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RISE 지역 특화형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임상병리학과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창업 경진대회는 광주 지역 대학 15개팀이 참가해 아이디어를 겨뤘다.

동강대 임상병리학과는 김진아·서대호·김현아·박윤영·박희은·윤지연·장지희·전민경(이상 2년) 등 8명으로 구성된 ‘화사랑’이 ‘인체 체

형용 실리콘 패드 개발’을 소개해 최우수팀에 선정됐다.

‘화사랑’을 지도한 김윤식 교수는 “인체 검사를 위한 재형 전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통증과 스트레스, 지혈 등의 문제점을 개선한 아이템이다”고 설명했다.

/박선옥 기자



GIST 기술경영아카데미 15기 동문 2천만원 기탁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은 “최근 기술경영아카데미(GTMBA) 제15기 졸업식에서 동문들이 발전기금 2천만원을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총 30주에 걸친 GTMBA 교육과정을 이수한 제15기 졸업생 44명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았으며, 장한상 현대콘베어㈜ 대표이사(제15기 원우회장)가 혁신리더상을 받았다.

장한상 15기 원우회장은 “GIST가 세계적인 이공계 교육·연구기관으로 더욱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원우들과 함께 발전기금을 기탁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GIST 동문으로서 학교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기철 총장은 “GTMBA 수료를 기반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최고경영자과정을 통해 쌓은 식견과 인적네트워크를 경영 활동과 지역 산업 강화에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선옥 기자

담양 가사문학면-순창 팔덕면 자매결연 협약

담양군은 “최근 가사문학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가사문학면과 전북 순창군 팔덕면이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백종원 가사문학면장과 박영래 팔덕면장을 비롯해 양 면사무소 직원 등이 참석했다.

두 지역은 협약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를 시작으로 행정,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백종원 가사문학면장은 “규모와 여건이 비슷한 두 지역이 만나게 돼 뜻깊다”며 “이번 자매결연이 상생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래 팔덕면장은 “정당한 자연을 간직한 가사문학면과 인연을 맺어 기쁘다”며 “앞으로 활발한 교류를 통해 끈끈한 정을 쌓아가자”고 화답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장흥경찰, 농기계 사고 예방 LED 조명 설치

장흥경찰서는 지난 26일 안양면 일원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농업기술원과 협업체 ‘농기계 교통사고예방 LED 조명무상 설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농번기와 수확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기계 30대를 대상으로 했다.

새로 설치된 조명은 기존 반사판보다 시인성이 뛰어난 ‘고휘도 LED(후면 부착형)’ 제품으로, 비나 안개 등 악천후 속에서도 식별이 용이하고 훼손 우려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또 별도의 충전이 필요 없는 자가 발전 방식으로 관리가 편하고,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아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하지



않는 등 안전성이 강화됐다.

경찰은 설치 이후 사고 예방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LED 조명 보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장흥=노형록 기자



조선대·화순군, 바이오캠퍼스 구축 ‘맞손’

조선대학교는 지난 26일 화순군청에서 화순군과 ‘화순 바이오캠퍼스 공동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조선대의 팹타이드 분야 연구 역량과 화순군의 백신산업특구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바이오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연구 인프라 활용 및 확충, 지·산·학·연·병 협력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화순 바이오캠퍼스 공동구축 기획 및 실행 ▲바이오 분야 학과 및 연구기관 설립·운영 ▲지·산·학·연·병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공동 행·재정적 지원 등이다.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바이오 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미래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캠퍼스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조선대와 함께 화순 바이오캠퍼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선옥 기자



설배환 전남대 교수, 몽골 친선훈장 수훈

전남대학교는 “최근 설배환(사진 왼쪽) 사학과 교수가 몽골 친선훈장인 ‘나이람달(Nairam dal) 훈장’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나이람달 훈장은 몽골의 발전과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한 외국인에게 몽골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 친선훈장이다.

설 교수는 오랜 기간 몽골제국 사회경제사와 물질문화사 연구에 매진하며 국제적 몽골학자로 자리매김해 왔다. 또 (사)중앙아시아학회 회장, (사)한국몽골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한국과 몽골 간 학술 교류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해 왔다.

/박선옥 기자

결혼

▲김종민(광주매일신문 논설실장)·이순영씨 차남 정수근, 이한섭·서정아씨 장녀 예진양=29일(토) 오전 11시 광주 드메르웨딩홀(본관) 4층 라비엔홀(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549).

▲최규룡(기아 오토랜드 광주)·김춘애씨 장남 대현(살레시오교 교사)·오행수·강성란씨 딸 신영양=29일(토) 오후 3시 드메르 웨딩홀 본관 4층 라비엔홀(광산구 도천동 147-29).

▲허용대·박영옥씨 아들 신익군, 박원우(호남일보 대표이사)·전 광주전남기자협회장·박동희씨 딸 화향양=29일(토) 오전 11시30분 웨딩그룹 위더스광주 3층 펠리체홀.

▲백석(백석세무사)·김민주씨 아들 윤호(회계사)·군, 목영군·배은경씨 딸 진실양=29일(토) 오후 1시30분 광주 하우스오브드레드 3층 아틀란티스.

▲문영호·유신임씨 장남 창진군, 신현구(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김옥희씨 장녀 해경양=30일(일) 오후 3시 서울대 연구공원 웨딩홀(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02)878-0465, 010-3721-8259).

▲임승빈·김라미씨 장남 진혁(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김환철(당양자치신문 대표)·김선남씨 장녀 민주(서울 초동교사)양=12월6일(토) 오후 2시 더컨벤션 반포 그랜드볼룸홀(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108, 02-6243-6000, 010-8915-4631).

부음

▲윤옥순씨 별세. 김동권·동옥·은심·은진씨 모친상, 최상철(만성출산 대표)·심홍규씨 병모상=발인 28일(금) 오후 1시 광주 북구 그린장례문화원 VIP실(1층), 062-250-4455, 010-3648-5443.